



수입농산물 경매 막대한 수익에 걸

일부다.

UR개방 압력 등 대외조건에 맞서고 있는 농협이 최근 시민들에게 비치는 한 모습이다.

요즘 농협은 우리농산물에 용 캠페인운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등 부산한 모습들이다. “수입농산물결사반대” “신도불이”(계땅에서 난 농산물이 몸에도 좋다는 뜻). 게다가 일부 경찰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사과 한 알 더 먹기 운동’을 펴기도해 우리 농산물 캠페인 운동은 시민적 호응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수입농산물 경매

농협은 그러나 수입업자들로부터 들어오는 수입농산물을 경매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어 ‘농민과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비판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바나나 파인애플 레몬 키위 등 수입자유품목들을 대량으로 경매하고 있는 것이다.

경매행위는 특히 농민들의 영농의욕마저 뭉개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농협에 대한 따가운 시선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김치, 비료, 무역업종 진출 등 사업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어 수익사업에 지나치게 관심을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농산물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농협중앙회가 뒷전에서 수입농산물을 대량으로 취급, 상장경매하고 있는 실태를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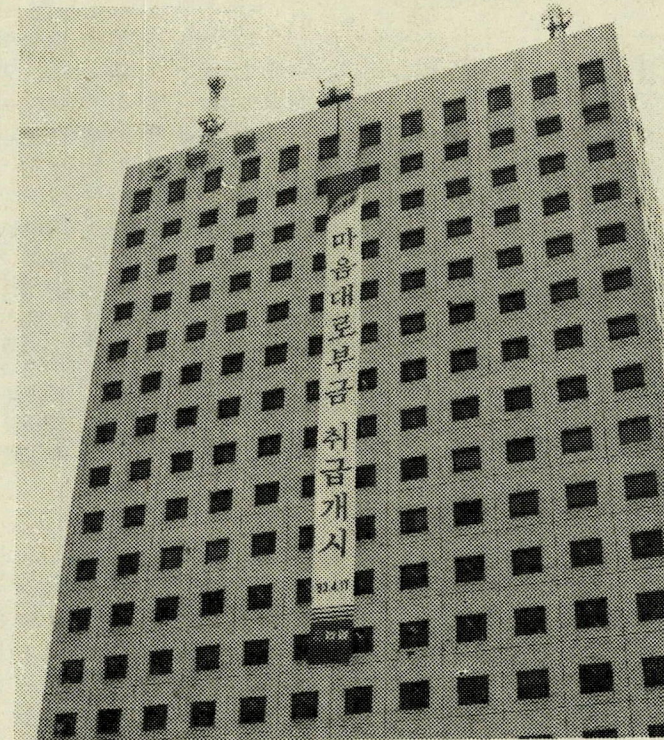
농협은 현재 법정도매시장인 서울 가락시장을 비롯해 전국 17개 공판장을 통해 경매하고 있다.

서울가락동 공판장의 경우 바나나 키위 파인애플 자몽 레몬 등 5가지 수입청과류를 취급, 경매를 통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

92년에는 바나나의 경우 63억6천만원(6천6백25톤), 키위는 5억7백만원(4백17톤), 파인애플 3억1천만원(3백50톤), 자몽 9천80만원(75톤), 레몬 3천9백만원(21톤) 등 가락동 농협공판장을 통

1월부터 93년 2월까지 대구 시내 3개 공판장을 통해 바나나 64억7백만원 파인애플 1억7천3백만원 등 65억8천만원어치 수입청과류를 팔아

당시 농협이 국회에 낸 농협공판장별 수입과일 취급실적에 따르면 그해 1월부터 8월말까지 가락동공판장 등 전국 14개 공판장에서 2만8



농협중앙회의 수입농산물 공판장 경매행위에 대해 “농민·소비자의 정서에 맞지 않는 처사”라는 비난의 소리가 높다. 사진은 서대문에 있는 농협중앙회 건물.

우리농산물 캠페인 뒷전으로 수입 바나나 키위 경매 “농민정서에 어긋난다”반발 커...농업 재투자 해야

해 모두 73억6백80만원어치 수입청과류를 경매 4억3천8백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농협대구시지회는 지난해 3억9천4백여만원의 이익을 챙겼다.

농협대전지회공판장에서도 92년 한해동안 바나나 키위 파인애플 등 37억3천8백만원어치 경매를 통해 2억2천4백만원의 이익을 냈다. 또한 농협 충남도지회, 경기도전북, 광주시지회에서도 수입청과류를 경매 막대한 이익을 냈다.

6% 수수료 챙겨

91년 9월 당시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농협은 수입농산물 경매에 앞장서왔던 사실이 밝혀져 오래전부터 ‘수수료 챙기기’를 해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천3백19톤의 바나나와 77톤의 파인애플을 상장경매해 25억8백만원의 중매수수료를 취득했다.

농협은 이처럼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가운데 당초 수입농산물에 대한 유통질서를 바로 잡는다는 취지와 달리 스스로 불법유통을 저지르기도 했다.

지난 7일 뉴질랜드산 키위의 국산 둔갑 판매로 엄청난 파문이 일때 농협공판장을 통해 불법유통반입된 물량은 무려 1백35상자에 달했다. 국산둔갑 파문은 국산키위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것은 물론 가격마저 폭락세를 보여 생산농가로부터 큰 반발을 샀다.

농협공판장 경매행위는 현행 농산물 가격안정에 관한 법에 따라 ▲수탁거부 금지

조항 ▲품목거래 제한고시여 근거해 상장수수료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농민정서에 어긋나는 처사’라는 비난을 무릎쓰고 계속해서 경매행위를 하는 데 대해 농협 판매사업부의 한 관계자는 “공판장 경매사업이 파인애플이나 바나나를 취급하지 않을 경우 이들의 수입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장사를 위한 구색조성으로 처부하고 듯해 놀라움을 더하고 있다.

농협이 농민 조합원들을 위해 하고 있다지만 대다수 생산농가와 농민들은 다른 견해를 밝힌다. 농민의 의사수렴이나 농업재투자자의 제도적 장치마련 없이 사업다변화를 추진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농협은 89년 10월부터 경기도 연천 강원도 춘성 경남 진해 3곳에 대규모 김치공장을 설립한 데 이어 그해 9월에는 남해화학의 미 아그리코사 49%의 지분을 인수하기도 했다. 농산물 수출과 각종 농업용 자재수입을 전담하는 무역회사 (주)협동무

역을 설립했다.

지난해 8월에는 농협이 농수산부에 ▲농수산물유통공사 담당하고 있는 밀·콩 수입권의 농협이관 ▲공영도매시장에 농협공판장 시범운영·집배센터 농협전담 ▲농산물 직판사업 농협전담 등의 내용을 건의해 ‘수입권을 탐내는’ 이권욕을 서슴치 않았다.

농산물유통 구조개선이나 농산물 수급안정 등 태산같이 쌓인 일을 제치고 농협이 수익사업에 열을 올리는 것은 순서도 맞지 않을 뿐더러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꺾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농협은 기왕의 수익금이 농업에 실질적인 재투자도 이어지도록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우리의 농촌과 농업을 지킬려는 농협의 의지는 시대가 바뀌어도 언제나 같습니다.”

숙대전철역 매표소 벽면에 내걸린 대형조명광고의 문구